

7/29(금) 이사야 28-33장 화 있을진저 !

오늘 본문은 <화 있을진저> 시리즈입니다.

매 장마다 재앙을 선포하는 <화로다! (하. 호이)>로 시작합니다.

* 32장에만 회복을 선포하는 히브리어 헨이 쓰임

이사야는 북 왕국에 심판을 선포합니다(에브라임/사마리아).

그들의 번영과 영화, 아름다움은 쇠잔해가는 꽃 같습니다(28:1).

술 취한 자,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인 사마리아는

곧 빨에 밟히고 면역버릴 것입니다(28:3-4).

이사야는 남 왕국에도 심판을 선포합니다.

유다의 종교적 난맥상들이 술 취함으로 비유되었습니다(28:7-8).

절기에 취한 제사장, 사람의 영광과 아름다움에 도취된 자들은

<누가 몰라? 시시콜콜 지적하긴*>, 이사야를 향해 비아냥댔습니다(28:9-10).

* 28:10, 차블라차브 차블라차브 카블라카브 카블라카브 제에르샴 제에르샴 [언어유희]

보지도, 듣지도, 깨닫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(29:1-16),

입으로만 공경하고 실제로는 열강에 줄을 대려 안달인 왕국은

결국 넘어지고 엎드러지며 불잡힐 것입니다(28:13, 29:13, 30:1-7, 31:1-4).

의지했던 외세와 함께 망할 것입니다(30:7, 31:3).

“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(32:15)”

그럼에도 이사야서는 흑암 중 한 줄기 빛을 보여줍니다.

<장차 한 왕>이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는 날(32:1,16, 33:5,14-16,20,22),

하나님의 영이 많은 사람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(32:15, 갤11:19, 36:26).

특정 인물에게 새로운 시대, 새로운 희망을 거는 것이 아니라,

공동체 전체가 변화된 존재로서, 변화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.

하나님 사랑, 이웃 사랑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(32:9-20).

나는 무엇에 취해 있습니까? (엡5:18)

① 번영과 영화, 아름다움과 교만에 취해 있습니까?

②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사랑, 이웃 사랑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?

시작기도 + 통독 이사야 28-33장